

(온라인여행사)

OTA 항공권 구매 소비자 피해 속출 환불불가·과다수수료 등 문제 빈번

비공식 경로 판매 항공권 피해 ↑
환불 등 항공권 구매 시 주의 필요
LCC업계, 공식홈페이지 구매 권장
소비자원 접수된 상담 사례 급증

저비용 항공사(LCC)가 항공권 판매 대리계약을 맺지 않은 곳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환불 수수료가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LCC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유통되는 항공권 중 항공사와 정식으로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주체가 임의로 항공권 알선 및 중개에 나서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가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항공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환불 불가 조건을 걸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에어부산은 “당사와 판매대리점 계약 중인 해외 OTA는 트립닷컴이 유일하다”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 해외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해외 외부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주의하라는 공지를 냈다. 특히 무료 위탁수하물 등 항공권에 포함된 서비스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의 항공사들도 항공사와 무관한 간접판매 항공권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아고다, 키워닷컴 등 일부 OTA를 통한 항공사와 정식 항공권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도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OTA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김포공항 탑승장에서 여행객이 길게 줄 서 있다.

/뉴스시

입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OTA에 입점한 항공권 공급업자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손님 것처럼 항공권을 대리 예약하는 식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은 간접판매 항공권의 경우 환불·일정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선 판매를 대리한 주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항공권을 대리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할인이나 환불 규정을 적용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사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이 대리점으로부터 환불을 거절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고객의 티켓이 환불할 수 있는 티켓이었기에 대리점 측에 환불을 진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인 뿐만 아니라, 해외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을 공급한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차·언어 등의 문제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고

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예약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일정이 변경되자 항공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해외 ‘서비스 구매’ 관련 7029건의 상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는 2022년 2062건 대비 41.5% 증가한 수치다. 주요 상담 상품은 OTA에서 주로 거래되는 항공권과 숙박권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회사마다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탑승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없이 90일 부터는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LCC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환불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LG, ‘이동형 AI 홈 허브’ 전 세계에서 연일 호평

IFA 2024

‘코드명 Q9’ 유럽서 잇따라 호평
해의 유력 매체서 최고 제품 찬사
‘퓨론’ 탑재,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

LG전자의 가전이 유럽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LG전자 전시관을 찾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자사의 ‘이동형 AI 홈 허브(코드명 Q9)’가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LG 이동형 AI 홈 허브는 LG전자의 AI(인공지능) 에이전트 ‘퓨론’을 탑재,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술로 움직인다.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 능력도 갖췄다. 수면·학습 등 아이의 생활 루틴에 맞게 조도 등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창작해 들려주는 등 아이의 정서까지 고려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테크어드바이저는 “몇 년 전부터 유사한 로봇이 있었지만 LG전자 제

품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T3도 이 제품을 최고 제품으로 뽑았다.

앞서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IFA 2024 개막 당일인 6일(현지시간) LG전자 전시관을 찾아 이동형 AI 홈 허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LG전자의 생활 가전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리처스’는 이번 IFA에서 처음 선보인 ‘에어로 컷’에 대해 호평하며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

에어로 컷은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을 위한 공기청정기다. 이 제품은 히터로 고양이가 앉는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고양이가 올라갔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풍량을 줄이는 ‘반려묘용 청정모드’가 탑재됐다.

또 미국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코드제로 A9X 무선청소기와 코드제로 R5 로봇청소기를 상하 직렬로 결합한 ‘LG 코드제로 올인원타워 콤비’와 오븐의 전면 도어를 노크하면 안쪽 조명이 켜져 조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오븐’에 대해 최고 제품으로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LG전자 ‘이동형 AI 홈 허브(코드명: Q9)’. /LG전자

세아제강지주, 영업·유통·생산 통합 나서

그룹 내 구조관 사업 재편

세아제강지주가 그룹 내 구조관 사업 통합을 통해, 구조관 사업의 시장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세아제강지주는 구조관 사업 전문 유통법인 에스에스아이케이(SSIK) 및 구조관 제조법인 동아스틸을 세아제강으로 통합하는 구조관 사업 재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사업 재편은 세아제강지주의 에스에스아이케이 지분 100%를 세아제강이 약 834억 원에 인수하며, 그룹 내 개별적으로 영위해오던 구조관 사업의 제조·유통·영업 부문의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시장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아제강지주는 구조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작년부터 ‘구조관 사업 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시너지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금번 세아제강으로의 구조관 사업 통합은 자체 구조관 사업 시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구조관 업계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구조관 시장은 배관 및 에너지 방향 강관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품의 구색 확보 및 신속한 물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다. 세아제강지주는 금번 구조관 사업 재편을 통해 ‘중복되는 비효율 제거’,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판매 유통망 확보’, ‘폭넓은 강관 포트폴리오 제공’ 등 영업·마케팅 측면에서도 통합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승적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검증된 고품질의 구조관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에 따른 건설자재 품질 이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금번 사업 구조 재편은 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구조관 사업의 통합 시너지 창출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국내 1위 강관사인 세아제강의 높은 고객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조관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최고의 럭셔리, 우아함과 역동성이 만났다”

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피어’ 출시
“韓 시장 벤틀리에 중요한 시장”

“한국 시장은 벤틀리 플라잉스피어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모델을 보시는 게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크리스티안 솔릭 상무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더 뉴 플라잉스피어’를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벤틀리는 11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벤틀리 타워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더 뉴 플라잉스피어’의 실물 공개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의 플라잉스피어는 2005년 처음 출시된 시리즈로 19년에 걸쳐 이번 4세대 모델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뉴 플라잉스피어의 한국 공식 판매 가격은 3억7570만원부터다. 옵션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다.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판 ‘더 뉴 플라잉스피어 스피드 퍼스트 에디션’은 4억4190만원이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크리스티안 솔릭 상무가 11일 벤틀리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세단 ‘더 뉴 플라잉스피어’를 소개하고 있다. /벤틀리

이번 4세대 플라잉스피어는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어링 세단이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600마력의 신형 4.0L V8 엔진과 190마력의 전기 모터 조합으로 구성됐다. 최고 출력은 782마력이며 102.05kg·m의 최대토크를 자랑한다.

EV 모드에서는 전기모터만으로 190마력, 45.8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최

고속도 14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

더 뉴 플라잉스피어에는 차세대 벤틀리 퍼포먼스 액티브 새시가 기본 적용된다. 벤틀리 퍼포먼스 액티브 새시에는 안티 롤 컨트롤 시스템인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 주행 상황에 따라 네 바퀴를 모두 조향하는 올 휠 스티어링과 전자제어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차세대 ESC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트랙션을 제공한다.

ESC 시스템은 전후 48.3:51.7의 무게 배분에 최적화된 차체 제어를 수행하며, 센터 디퍼렌셜의 능동형 토크 벡터링 기능을 통해 전후 구동축에 정확하게 동력을 배분한다.

벤틀리 측은 이번 플라잉스피어의 디자인을 두고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휴식을 취하는 맹수를 연상시키는 럭셔리 세단 고유의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승계한다”고 소개했다.

/박대성 기자